

로마가 비전을 세운다 - 열세 번째

로마의 논쟁들: 짐승의 형상의 최후의 시험에 대한 이해

Jeff Pippenger

2024-09-01

현재의 사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결론짓기 위해 재림 역사에서 일어난 다양한 논쟁들을 한 줄 한 줄 이어 종합하면서, 우리는 다섯 가지 예언적 선의 선택된 특성들을 취했다. 첫 번째 선은 마지막 선이기도 한데, 두 논쟁 모두 다니엘 11장 14절의 '네 백성의 강도들'에 직접 근거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라이어 스미스와 제임스 화이트의 논쟁, 그리고 다니엘서의 'the daily'에 관한 논쟁을 살펴보았다. 또한 1989년에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여섯 절의 봉인이 풀린 후 북방 왕을 둘러싸고 일어난 논쟁을 검토했다. 그다음 요엘서의 네 가지 곤충을 살펴보았다. 이들 각 선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지만, 우리는 로마라는 주제와 관련된 진리를 거부하는 입장들의 형성에 기여한 몇몇 특성들만을 단순히 가려내고 있을 뿐이다.

역사는 다섯이지만, 첫째가 마지막이기도 하여 여섯 개의 선을 나타낸다. 이 논쟁의 선들의 예언적 배경은 말세이므로, 그 선들은 짐승의 우상에 대한 시험의 때에 적용되어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짐승의 우상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형성될 것임을 내게 분명히 보여 주셨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큰 시험이 되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그것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다." Manuscript Releases, 제15권, 15쪽.

짐승의 형상의 형성에 대한 시험은, 다른 여섯 가지 논쟁과 마찬가지로, 로마라는 예언적 주제에 관한 시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기 전에 일어나는 큰 시험은 로마의 짐승의 형상을 형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 짐승은 교황권이며, 미국은 머지않아 시행될 일요일법으로 나아가면서 교황권의 형상을 형성한다.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는, 종교 권력이 세속 정부를 통제하여 국가의 권위가 또한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에 의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대논쟁, 443.

미국의 그 일요일 법은 미국에서 짐승의 형상이 완전히 형성되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세속 권세로 종교적 의무를 강제하는 바로 그 행위에서,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일요일 준수를 강제하는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된다." 대쟁투, 449쪽.

일요일법이 시행될 때, 미국에서는 짐승의 형상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으며, 미국은 그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짐승의 형상을 만들도록 강요하는 예언적 사역을 시작한다. 미국에서 일요일법이 시행될 때 사탄은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포괄하는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과정을 각 나라가 반복하도록 이끄는 그의 놀라운 사역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교황권 제도를 강요하는 칙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의와 완전히 단절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그 간극을 넘어 로마 권세와 손을 잡으려 손을 내밀 때, 심연을 가로질러 강신술과 손을 맞잡을 때, 그리고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 나라가 개신교적 공화 정부로서의 헌법상의 모든 원칙을 부인하고 교황권의 거짓과 기만을 전파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놀라운 역사의 때가 이르렀고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게 될 것이다. 증언 5권, 451쪽.

미국에서 곧 다가올 일요일 법령이 제정될 때, 사탄은 미국과 협력하여 모든 나라가 정교결합 체제를 수립하고 일요일 예배를 강제하는 미국의 본을 따르도록 강요할 것이다.

사탄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기 위해 기적을 행할 것이다. 심령술은 죽은 자들을 가장하여 나타나게 함으로써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듣기를 거절하는 종교 단체들은 강한 미혹에 빠지게 되고,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 세속 권세와 연합할 것이다. 개신교 교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박해하는 일에 교황권과 연합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양심 위에 영적 폭정을 행사할 거대한 박해 체제를 구성하는 그 권세이다.

'그는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졌고, 용처럼 말하였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따르는 자라고 공언하면서도, 사람들은 용의 영에 물든다. 그들은 자신들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주장하지만, 사탄의 영으로 말하고 입법하며, 그들의 행위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정반대임을 드러낸다. 이 어린 양 같은 권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 용과 연합한다. 그리고 사탄은 개신교도들과 교황주의자들과 연합하여, 이 세상의 신인 양 그들과 보조를 맞추며, 마치 사람들이 그의 왕국의 신민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자기 뜻대로 다루고 통치하고 통제한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용의 영이 드러난다. 그들은 투옥되고, 재판정에 회부되며, 벌금을 물게 된다. "그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더라" [요한계시록 13:16].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형상이 말하게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게 하더라" [15절]. 이처럼 사탄은 여호와의 고유 권한을 찬탈한다.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며 행동한다. Manuscript Releases, 14권, 162쪽.

교황권은 짐승이고, 유엔은 용이며, 미국은 거짓 선지자다. 적그리스도의 의미, 곧 적그리스도는 사탄이며 동시에 사탄의 지상 대리자인 로마의 교황이라는 점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불법의 사람이 아니다.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이며 그는 사탄의 지상 대표이다. 교황권을 세상의 권좌에 앉히는 권세를 교황권 자체와 혼동하는 것은, 바울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황권이 드러나기 위해 이방 로마가 제거되기 전까지 이방 로마가 교황권을 억제했다는 그 예언적 연관성을 부정하는 것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거부하고 바울이 강한 미혹이라

규정한 거룩하지 않은 영의 부여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고대의 예언자들 각자는 자신들이 살던 시대보다 말세에 관해 더 직접적으로 말했다.

옛 선지자들은 각자 자기 시대를 위해 말한 것보다 우리를 위해 말한 바가 더 많았으므로, 그들의 예언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제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 함이며, 또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세상 끝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므로, 우리를 훈계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0:11. "그들이 섬긴 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니, 곧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이제 너희에게 전해진 것들이다. 이 일들은 천사들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한다." 베드로전서 1:12. . . .

"성경은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그 보화를 모아 한데 묶어 두었다. 구약 역사의 모든 위대한 사건들과 엄숙한 일들은 이 마지막 날들의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도 되풀이되어 왔고,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선택된 기별, 제3권, 338, 339쪽.

이교 로마와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오는 '죄의 사람'은 마지막 때의 미국과 교황 로마를 상징한다. 이 진리를 오해하는 것은,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적인 해석이 '표상과 실상'의 원리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표상과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일이다. 성경 역사에서 미국은 여러 권세들로 예표되어 왔다. 두 뿔을 가진 모든 권세는 마지막 때의 미국을 상징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북왕국과 남왕국이든, 메대-바사 제국이든, 소돔과 애굽으로 표상된 무신론 프랑스이든 마찬가지다.

미국이 짐승의 형상, 곧 그 짐승을 위한 형상을 세우는 시기는 다니엘 2장의 철과 진흙, 다니엘 8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작은 뿔, 그리고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증언 속에 등장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숲의 제사장들에 의해 예표되어 왔다. 헤롯의 술 취한 생일 잔치 장면에서 살로메는 미국을 예표한다. 버가모는 미국을 예표하고 두아디라로 이어지는 타협을 지목하는데, 두아디라는 말세의 교황권을 예표한다.

496년에 프랑크인의 왕이었던 클로비스는 로널드 레이건 시대의 미국을 예표한다. 533년의 유스티니아누스는 일요일법령 이전의 도널드 트럼프를 상징한다. 각 예표에서 미국은 말세의 교황권에 복종하여 머리를 숙이는 세력을 대표한다. 그렇게 복종하는 세력은 로마에 충성을 바치는 것으로 묘사된다. 충성 서약의 행위에는 수장인 왕에게 절하는 것이 포함된다.

어린 양 같은 뿔을 가진 짐승으로 상징된 권세가 미국임이 밝혀졌고, 또한 로마가 자신의 최고권을 특별히 인정하는 표시라고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제할 때 이 예언이 성취될 것임도 드러났다. 그러나 교황권에 대한 이 경의에서 미국이 홀로 서지는 않을 것이다. 한때 로마의 지배를 인정했던 나라들에서 로마의 영향력은 아직도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한참 이르다. 그리고 예언은 로마의 권세가 회복될 것을 예고한다. '나는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죽게 될 듯이 상한 것을 보았고,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놀라 따랐다.' 3절.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사건은 1798년에 있었던 교황권의 몰락을 가리킨다.

이 일 후에, 선지자는 말한다. '그의 치명상이 나왔고, 온 세상이 그 짐승을 따라 놀라워하였다.' 바울은 '죄의 사람'이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3-8.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만의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계시자는 역시 교황권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땅에 사는 자들 가운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를 경배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8. 구세계와 신세계 모두에서, 오로지 로마 교회의 권위에만 근거한 일요일 제도를 존중함으로써 교황권은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 위대한 논쟁, 578.

마지막 문장은 화이트 자매가 '구세계'라는 표현을 유럽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세계'를 아메리카 대륙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음을 보여 주는 추가 증거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교황권에 경배하며 나머지 세계도 똑같이 하도록 강요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이는 미국이 교황권의 지시에 복종하는 위치에 있음을 드러낸다. 굳게 세워지려면 '머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이사야가 강조한 것은, '머리'라는 상징이 예언의 외적 흐름뿐 아니라 내적 흐름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그 신적 목적을 드러낸다.

이는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임이라. 예순다섯 해 안에 에브라임이 부서져 더 이상 백성이 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 7:8, 9.

마지막 날들, 즉 모든 예언자의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는 그때에, "네 백성의 약탈자들"이 그 이상을 확립한다. 예언의 신의 권위에 근거하고, 하박국의 두 거룩한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림주의 기초 진리들과 일치하여, 그 "약탈자들"은 로마를 상징한다. 이교 로마가 기원전 200년에 처음으로 역사 속에 등장했을 때, 그것은 말세의 현대 로마를 예표했다. 이 예언적 진리가 말세의 예언적 이상을 확립하는 것이며, 현대 로마의 "머리"가 교황권임을 보기를 거부한다면, 너는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폭풍과 전쟁과 분열로 가득하다. 그러나 하나의 수장—교황권—아래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증인들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하려 하나로 연합할 것이다." 증언, 제7권, 182쪽.

들을 귀가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시대 유대인들의 주된 과오가 그들이 '그림자'를 '실체'로 동일시했다는 데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십자가 전에도 후에도 자기들의 예배 체계에 있는 예표들에 의지했고, 그 예표의 실체를 거절했다. 그들은 '그림자'가 '실체'라고 주장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영감된 기록 속에 마지막 때에도 그림자를 실체로 동일시할 한 백성을 남겨 두었다.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 때, 이는 짐승의 그림자를 빚어내는 행위다. 형상은 전형이기에, 곧 실체의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다.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 때 그 미국을 현대 로마의 상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이 위대한 반형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비견된다.

미국이 "네 백성의 약탈자들"이라고 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르치는 이들은 자신들의 "모형과 실체" 사용에 관해 많은 말을 하며, 자주 미국을 "짐승의 우상"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미국을 "짐승의 우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떻게든 미국이 "약탈자들"임을 입증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들이 정말로 "모형과 실체"의 기본 원리에 자신들을 복종시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예표된 미국의 예언적 역할이 미국을 교황권에 복종하는 권세로 지목하고 있음을 금세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짐승을

참조점으로 삼지 않고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짐승의 우상을 규정하려 드는 것이 부조리함을 알았을 것이다. 짐승의 우상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짐승 자체뿐인데, 이는 거울 속 환상에서 그 우상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황권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짐승의 형상을 형성하는 것과 병행되는 예언의 선은 참된 개신교의 뿌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때이다. 그 형성은 다니엘서 10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데, 다니엘이 '마라'라 불리는, 곧 '거울' 환상을 볼 때이다. 다니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을 대표하며, 그들은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한다. 그리스도의 환상이 다니엘에게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에 의해 대표되는,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14만 4천이 그러하려면 그들은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아야 한다. 바라봄으로 그들은 변화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고린도후서 3:18.

다니엘이 10장에서 본 "marah" 환상에 대한 히브리어 정의는 "환상; 또한(사역적으로) 거울: -거울, 환상"이다. 앞 구절에서 거울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자신을 거울에 비추다, 즉 비친 모습을 보다(비유적으로)를 뜻한다: -거울에 비춘 것처럼 바라보다.

제임스는 또한 거울과 관련된 진리의 한 논지를 제시한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으니, 그는 자기를 보고 자기 길로 가서 곧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 머물러,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23-25.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하여 말씀을 행하는 자라면, 우리가 바라보는 거울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그 후에 다니엘과 함께 있던 자들이 도망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자기 길로 가 버린다면, 그 거울에는 그저 우리 자신의 모습만 비칠 뿐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비추어 보여 주는 거울이며, 그의 앞에 올바른 모습을 들어 보인다. 어떤 이들은 돌아서서 이 모습을 잊어버릴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 성품의 결함을 고쳐 줄 것이라도 되는 양 율법을 향해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믿음과 행위, 31.

다니엘은 거울 같은 환상에서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완전한 표상인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반영이다. 그분 안에는 생명과 소망과 빛이 있다. 그분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는 같은 형상으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될 것이다." 시대의 징조, 1910년 5월 10일.

짐승의 우상은 짐승을 반영하며, 그 우상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큰 시험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개신교 교회들이 미국의 정부를 장악하게 되면, 그들은 교황권이 줄곧 사용해 온 정교일치 체제를 본뜬 형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같은 시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의 말세 백성들 안에 빚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과 함께 있던 자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했으니, 그들이 그 환상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될 때, 두 부류의 예배자가 드러난다. 한 부류는 반사 원리를 거부한다. 그 반사 원리는 거울로 상징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적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지상의 실제 사물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비유 가르침에는 그분이 친히 세상에 오신 사명에서와 동일한 원리가 드러난다.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품성과 생애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신성이 인성 안에서 드러났고, 보이지 않는 영광이 보이는 인간의 형상 속에서 나타났다. 사람들은 알려진 것을 통해 미지의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하늘의 것들은 땅의 것들을 통해 드러났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였다. 알지 못하는 것은 알려진 것으로 설명되었고, 신성한 진리들은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땅의 것들을 통해 밝혀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온 것들을 말하리라 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3:34, 35. 자연의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위한 매개였다. 자연의 사물들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삶의 경험은 기록된 말씀의 진리와 연결되었다. 이처럼 자연에서 영적 나라로 이끌며, 그리스도의 비유들은 사람을 하나님과, 땅을 하늘과 잇는 진리의 사슬을 이루는 고리들이다. 실물교훈, 17.

반사의 영적 원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울을 들여다봄으로써 이루어지며, "marah" 환상은 인과적 환상이기 때문에 거울 속 그리스도의 형상이 인류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낸다.

미국이 환상을 세운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니엘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세운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환상을 세우시는 분이며,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환상을 세우는 자이다. 환상은 거울로 비쳐지는 것이고, 그 환상은 강도들에 의해 세워진다. 형상을 실제 짐승으로 동일시하여 짐승의 형상을 오해하는 것은 평행선을 낳는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거울에서 자기 자신만 본다. 또는 설령 하나님의 율법을 보게 되더라도, 그 요구를 피하기 위해 그 율법을 멸시한다. 회심한 사람은 거울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율법을 본다. 미국은 교황권을 바라보고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교황권의 형상을 만든다. 미국은 적그리스도를 모방한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정치적 보좌와 종교적 보좌에 앉기를 원했다.

오 루시퍼여, 새벽의 아들이여,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던 자여, 어찌하여 네가 땅에 짝혀 쓰러졌는가! 이는 네가 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또한 북쪽 변두리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데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에스겔 14:12-14.

사탄은 적그리스도이며, 교황권 역시 그렇다. 교황권은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유럽의 정치 권좌들 위에 군림했다.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원인적 거울은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그 진리는 적그리스도의 계열을 규정한다. 한 나라나 개인이 그 거울 같은 이상을 들여다볼 때, 그것은 원인적 효과를 낳는다. 그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개인이나 국가 안에 자기 형상을 재현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형상 또는 짐승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나타난다. 이는 다니엘이 나타낸 동일한 효과와 병행한다.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미국이 짐승의 형상을 만들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미국을 위한 이상을 세운다.

다음 글에서 이 생각들을 이어가겠습니다.